

2019년 4월 18일, 서귀포시 중앙동 중앙동노인회관, 류진옥 조사
 김덕봉(남, 1932년생, 서귀포시 중앙동)

- 제주시 건입동 출생, 현재 서귀포시 중앙동에 거주 중이다.

- 줄거리: 다리가 불편한 지성이와 앞을 볼 수 없는 감천이가 함께 동냥을 다니며 착하게 살았다. 하루는 큰뱀을 만나 지성이가 그 뱀을 탁 치니 큰 황금 두 덩어리로 변하여 그 재물을 나누며 함께 잘 살았다. 이후 마음을 곱게 쓰면 복이 온다는 의미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한다.

[제보자] 사람은 마음은 곱게 먹으라 그랬는데 내 마음이 고우면 옷 앞섶이 아문다. 지성이면 감천이니라. 그 뜻을 알아요? 내 얘기할게.

지성이면 감천.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소리는 어떻게 됐냐면, 나도 이 말을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야기 든 거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데.

지성이면 감천, 지성은 눈을 뜬 사람이에요. 눈을 뜬 사람인데, 양쪽 다리가 불순 돼서 걷지 못하니까 감천이는 눈봉사예요. 눈봉산디 그 다리고 손이고 전부 멀쩡헌디 눈이 봉사여. 그러믄 지성이허고 감천이가, 그 감천이는 지성을 업고 눈봉산디 걸을 수 잇으니까, 이레 가자 저레 가자 허믄 이렇게 잡고 가는데 그래서 이 고을 저 고을 얻어 먹으러 다녔어. 옛날에 이 고을 저 고을 이 마을 저 마을 얻어 먹으러 다니는데 하도 더우니까 얻어 먹으러 다니다가 큰 정자나무 밑에 딱 쉬고 있는데.

딱 지성이가 보니까 큰 구렁이가 하나 있거든. 하이고 이거 구렁이가 하나네. 그러믄 이제 몽둥이를 하나 짚고 이제 다니는데, 몽둥이로 그 구렁이 베염을 잡아 때리라 죽여 불게. 그러니까 이제 지성이가 말이며 베염을 딱 때리니까 두 딱 나눠져 불져. 갈라져 불었어.

헨 나중엔 보니까 그것이 뱀이 아니고 큰 황금이 두 개로 딱 갈라졌어. 웨 두 개로 갈라졌냐며는 황금을 하나로 돼 잇으믄 서로 싸우게 될 건디 그래서 딱 보니까 구렁이가 두 개가 돼니까 황금 두 개가 딱 나눠져 버렸어.

그래서 그 사람 참 마음이 곱고 그 정말 얻어 먹은 다니지만, 그 애정을 푸면서 다니니까 그래서 마음 좋으니까 그래서 반듯이 갈라서 두 사람은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았어.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야.

마음을 곱게 언제나 사름은 곱게 허면 남을 그 못살게 하든가 또 뭐 좀 도둑질을 하든가 또 이제 몽니를 부리든가 이렇게든 안 된다 이거여. 그래서 조상이 그런 나쁜 행동을 하며는 그대로 몇 대 후에는 안 된다는 거야.

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먹어라.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. 마음이 고우며는 옷 앞섶이 아문다.

옛날 옷을 한복을 입으면 이렇게 벌어지는데 마음 고운 사람은 옷 앞섶이 잘 감춰진다. 그래서 그 말이여. 그걸로 끝이야.

- 핵심어: 구렁이(구렁이), 베염(뱀), 황금, 지성, 감천